

물보다 진한 피,

사람을 살리는
붉은 생명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화두가 있다. 바로 혈액형이다. 같은 혈액형을 가진 이들이 함께하면 즐거울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어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혈액형이 맞을 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글 이영경 사진 엄태현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



국민과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설립된 한마음혈액원

“생명은 사고팔 수 없다는 인류공통의 윤리에 기반을 두고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혈액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도 않죠. 그러므로 헌혈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혈액을 구하는 방법은 오직 헌혈뿐입니다. 굳이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산업보건의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은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다. 안정적인 안전한 혈액 공급이라는 국가 혈액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독점적인 혈액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설립되었다. 황유성 원장은 “한마음혈액원의 탄생은 혈액 수급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혈액은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치료 의약품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일하게

혈액을 공급했던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품질 문제와
간혹 이루어지는
파업 등으로



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계는 대안이 될 만한 혈액원은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기대를 담아 우리 협회에서 한마음혈액원을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과 취지, 목적을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이해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한마음혈액원은 현재 서울, 경기권에 헌혈카페 18곳과 헌혈버스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헌혈 및 단체·출장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 소재의 본원에는 혈액검사, 혈액제제 등을 할 수 있는 최신 장비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2017년도 한마음혈액원 헌혈 건수는 206,247건이며, 혈액 공급량은 354,596 unit이다. 전국 헌혈의 약 7%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지역 헌혈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공급처로는 서울대학병원, 연세대



학교의료원, 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등 각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비롯해 중소규모의 병원까지 약 100여 곳이다.

“큰 규모의 우수한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지는 않으나 사용이 빈번한 곳에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작은 병원에서도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헌혈문화 선도하는 한마음혈액원

2017년도 국민 헌혈률은 5.69%이며, 주요 헌혈 연령대는 10~30대이다. 그중 20대가 가장 많은 헌혈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두 배 이상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연령대에 편중된 참여율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헌혈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죠. 출산율은 저조하고 헌혈 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등에서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마음혈액원은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화이벤트와 초대행사,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의 잠재 헌혈자들을 위해 어린이 박람회 등에 참가해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학교 헌혈 시에는 현장에 전문 의료진을 배치해 헌혈 및 건강에 관한 안내와 상담, 향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하고 있어 각 학교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밝고 따뜻한 헌혈카페의 분위기는 헌혈자가 쾌적한 마음으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을 생각한 편의성은





헌혈은 건강한 신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혈문화를 선도하는데 특목한 기여를 했다. 또한, 향후 단체헌혈을 위해 경북 구미까지 운영하고 있는 헌혈버스의 영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국민들은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황유성 원장은 무엇보다 헌혈을 위해 노력하는 각 사업장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수고를 격려했다. “나 하나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나를 시작으로 우리가 되고, 그 우리가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사회공헌이 있겠지만 헌혈은 그중에서도 마음과 건강한 신체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회공헌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

든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음혈액원은 헌혈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이들도 아름다운 행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헌혈서포터즈, 자원봉사 등의 문을 열어놓았다.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헌혈서포터즈는 헌혈과 관련된 콘텐츠 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 홈페이지 및 SNS,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헌혈카페에 방문해 가입신청서 작성도 가능하다. ☺

